# 어린이집 원장들은 보육교사실습생으로 사이버대학교 재학생들을 선호하지 않는가?

Don't the Directors of Kindergarten prefer students to Cyber university students as apprentice of Educare Field Practicum?

이 문 숙
서울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Moun-souk YI(tlseyi@iscu.ac.kr)

## Ⅰ. 서론

2001년 9개 대학교의 개교를 시작으로 2017년 현재 국내 사이버대학교의 수는 2년제 대학을 포함해 21개교에 이른다. 사이버대학교의 출발은 평생교육법 하에서 이루어졌으나 2009년을 기점으로 일반대학교와 같은 고등교육법 하에 편입되어 대학의 편제나 학사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이렇게 모든 부분에서 일반대학들과 같은 편제, 행정, 교과과정들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유독 실습 관련 과목에서 관련학과의 학생들이나 교수들이 불편을 경험하고 있어 그 불편함의 근원을 찾아내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어떤 것인가를 파악하고, 개선의 방향을 도출해 내고자 하는데 있다.

본 연구를 위해서 서울과 수도권의 10개의 어린이집과 어린이집 원장들을 무작위로 선정하고 질적연구의 방법을 택해 인터뷰이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하고 이를 분석한 후 결과물을 도출할 것이다.

## Ⅱ. 연구방법

### 1. 연구참여자 선정 및 주요 특성

본 연구의 참여자는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며 연구자와의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참여에 동의한, 사이버대학교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10명의 어린이집 원장들을 택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방법인 질적연구는 양적연구와는 달리 표본이 얼마나 대표성을 띠는지 또는 연구를 일반화할 가능성이 있는지 보다는, 얼마나 깊이 있고 풍부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연구 참여자로부터 얻을 수 있는 자료가 최대화될 수 있는 대상을 선정하고자 유의하였다.

### 2.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연구자가 재직하고 있는 S사이버대학교에서 지난 4년 동안(2013년 - 2016년) 보육실습 총괄을 맡고 있으면서 스스로 질문을 던졌던 문제를, 실습지 방문을 했던 어린이집 중 열 곳을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무작위로 추려냈다. 이렇게 추려낸 어린이집 원장들은 사이버대학교을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경험을 한 이들이며, 2017년 2월부터 4월까지 약 3달 간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에 대한 기초조사 후, 그들 자신의 개념과 경험을 언어로 이야기하게 하는 심층면접기법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 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자료의 분석은 몇 가지 구체적인 주제 분석 과정을 거쳤다. 먼저 녹음된 내용을 연구자가 여러 번 들으면서 필사된 내용과 어디가 다른지를 찾아내면서 내용을 확인하고, 진술들을 공통된 주제별로 묶어 따로 정리하였으며, 도출된 주제들을 비교분석하여 관련된 주제들과 구분되는 주제 등을 분리시켜서 현상에 대한 본질적 주제를 결정하고 이를 기술하였다.

## Ⅲ. 어린이집 원장들이 사이버대학 출신 재학생들을 보육실습생으로 선호하는가에 대한 분석

기존의 참고자료와 인터뷰 분석의 결과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대부분의 면접자들은 사이버대학교에서의 교육이 정확히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 알지 못했다. 본인이 on-line 대학교에서의 직접적인 경험이 있지 않는 한, 대강 "그러그러 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보육실습생을 받는데 있어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역으로 on-line 대학교에서의 학습경험이 있는 원장들은 앞의 경우와는 달리 보육실습생을 받는데 주저함이 덜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심층 면담자들 중 사이버대학교 재학생들의 보육실습을 받아들인 경우, 실습 초기의 실습생들의 현장에 대한 이해의 정도가 매우 낮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는 사이버대학교 재학생들의 현장에의 접근성이 매우 떨어짐을 지적하는 것으로, 일반대학교와 비교해 가장 큰 한계점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면담자들은 사이버대학교에서도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는 것이라면, 재학생들의 현장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즉 보육실습을 실시하기 전 실습관련 혹은 연계된 교과목을 개설하고, 이를 실습을 시행할 학생들에게 선수과목으로 (예 : 그룹수업, 모의수업) 제시할 것을 예로 들고 있다.

셋째, 인터뷰의 결과 현장접근 경험의 부족은 보육실습 기간 중 실습의 주요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교과과정 속에서 이론으로 학습한 내용들이 실습을 진행하는 동안 현장과 맞아 떨어지지 못하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교구교재 작성 시 이를 원활히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넷째, 어린이집 원장들의 실습생에 대한 생각이 사이버대학교 재학생들을 보육실습생으로 받을지, 그렇지 않을 지를 결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보육실습은 대학 내의 아동학과, 보육학과, 사회복지관련 학과 중 아동복지학과 등에 교과과정 속에 포함되어 있는 과목이며, 보육교사자격증 취득을 위한 필수과목이기도 한 중요 과목이다. 또한 〈실습〉 과목은 이론과목들을 모두 이수 한 후 최종적으로 현장을 경험하는 과목이다. 따라서 실습생이 〈실습〉을 어떻게 진행하는 가는 어린이집에도 실습생에게도 매우 중요한 경험이 된다. 여기에는 어린이집 원장들의 〈실습〉에 대한 교육철학과 목표가 어떠하냐에 따라 그 양상이 달리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실습생을 공부하는 학생으로, 지도를 필요로 하는 학생으로 받아들이는 원장들의 경우 일반대학교와 사이버대학교를 가리지 않고 실습생을 받고 있었으나, 시기에 따라 인력의 충원으로 실습생을 생각하는 경우에는 교육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었으며, 이 경우 사이버대학교 재학생들의 단점이 더 드러남을 알 수 있었다.

다섯째, 일부 어린이집 원장들 중 「사이버대학교에서 보육실습자격증을 취득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라고 주장하는 점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지나친 생각이다"라고 답하고 있다. 단, 단점으로 지적되는 부분의 보충은 강하게 주장하고 있음도 알 수 있었다. 즉, 사이버대학교에서 보육실습자격증을 취득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교육시켜 현장에 내보내느냐가 문제임을 지적하고 있다.

## Ⅳ. 결론

앞에서의 분석을 통해 사이버대학교 재학생들이 보육실습을 하는데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점을 보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보완을 통해 사이버대학교에서의 보육실습도 일반대학교 수준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실습자나 실습교육을 총괄하는 어린이집 원장들에게 확실히 함과 동시에 어린이집 원장들이 가지고 있던 일련의 편견도 극복 가능할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 ■ 참 고 문 헌 ■

[1] 심윤희, "보육실습기관에서 들려주는 보육실습 의미와 개선방안" 한국보육학회 |16권 2호, pp. 17~38, 2016.
[2] 조영달, 질적연구방법론, 근사, 서울, 2015.
[3] Catherine Meyor, "Le sens et la valeur de l'approche phénoménologique," Recherches Qualtatives, Hors Série, No4, pp.103-118, 2007.